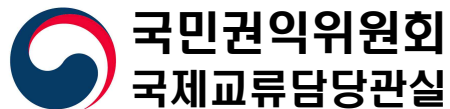


# '18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

2018.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 2018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및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회의 참석 결과

### □ 회의 개요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8. 10. 8(월)~10(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 10.10(수) G20 반부패실무그룹 스포츠분야 부패 방지 부대행사

####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회의)

- 일시/장소 : '18. 10. 9(화)~11(목)/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 10.9(화)는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합동 회의(Joint session)
- 참석자 : G20 회원국,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세계은행·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30여 명

###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주요 결과

- 2018년 주요 주제로서 연중 논의된 ‘공기업 청렴성 제고’ 및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고위급 원칙 최종안이 도출되었으며, 최종안 회람 후 열흘간의 침묵기간(Silent Procedure)을 가진 후 확정될 예정이다.
- 공기업 운영에 대하여 외부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 의한 감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단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된 최종안이 도출됨.
- '19-'21 반부패 실무그룹 행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으며, 큰 틀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합의됨.

- 상기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의장국인 일본이 ‘19년 반부패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뇌물, 인프라, 내부고발자, 새로운 기술(가상화폐 등)** 등의 주제가 언급됨.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내년도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인프라실무그룹간의 합동 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지지를 표명함.
- 특히, 상기 행동계획상 주요 논의 의제에 **부패측정(measurement of corruption) 수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향후 3년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임.
-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정책 장려제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요약문을 발표함.
  - 동 설문조사는 G20 국가들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부 반부패 정책을 마련 또는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여 비교·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가짐.
  - 특히 동 결과보고서는 상기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요약정리한 것으로서, 향후 기술이전 및 ODA 사업 필요시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분야 부패**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동 분야에 대한 개념적 적립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 ‘19년도 제1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19년 1.21-23(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회의는 4월중에 개최, 제3차

회의는 정상회담(6월 25-29간 개최 예정) 이후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일정은 미정임.

## □ 정부 대표단 활동

- ‘G20 국가별 반부패시책 시행 장려정책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자료집을 발간하여 사무국 및 회원국, 참관국, 관련 국제기구에 배포함.
- 또한 동 조사 이행내용을 2018 G20 반부패실무그룹 이행보고서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한바, 독일의 제창과 기타 회원국의 동의로 반영됨.
- 우리 대표단은 내년도 의장국인 일본 대표단을 접촉하여 내년도 주요 의제중 하나인 **내부고발자** 관련,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소개하면서 3차에 걸쳐 진행될 내부고발자 관련 논의에 발제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림.

## □ 관찰 및 평가

- 이메일로 의견을 회람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국의 불투명한 의사운영에 대한 항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2019-21 행동계획 논의를 20:00까지 진행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관행을 보임.
- 향후 3년간 행동계획에 부패 측정 수단에 대한 의제가 포함되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내년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인프라, 내부고발자, 뇌물, 가상화폐 등에 대한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 및 대응방안 또

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찰됨.

## 2

## 세부 회의 결과

### (2018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 □ 개회

- 가브리엘라 라모스(Gabriela Ramos) OECD 수석비서관 겸 G20 세르파가 비디오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라우라 알론소(Laura Alonso) 아르헨티나 부패방지국 공공윤리 비서관과 기욤 샤베르(Guillaume Chabert) 프랑스 공공재무회계부 다자업무비서관이 공동 의장으로서 환영인사를 하였음.
- 10.8-9간 논의될 의제를 소개하며 금년 마지막 실무그룹회의로서 금년도 이행보고서, 차후 3년간의 행동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임을 소개함.
- 2018 고위급원칙 두 가지에 대한 회원국 간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음을 선언함.

#### □ 반부패실무그룹 향후 운영 방안

- 향후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존재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됨.
- 의장국에서 사전에 배포한 설문조사에 따라 Guidance provider (가이드 제공 역할) A, Standard setter (기준 마련 역할) B, leading by example by self-reporting (자체 이행을 통해 주도하는 역할) C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미국, 중국, 영국 등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이 회신한 결과 C 모델에 대한 지지 큰 것으로 확인됨.
- 한편, 향후 반부패실무그룹 운영 방식을 2-3차례 논의 후 결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동 사안에 대한 논의는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발언

- (캐나다, 영국) 고위급 원칙 이행에 대한 스케줄을 별도로 마련하여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고위급 원칙 이행을 비G20 회원국들이 알도록 공개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미국) G20는 정치적 회의체로서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력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롭게 생겨나는 반부패 의제들(인프라, 스포츠 등)에 대한 고위급 원칙과 이행 평가에 대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활용할 수 있음.
- (독일) 이행보고서를 고위급 원칙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G20 회원국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비G20 회원국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 수행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혁신적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브라질) G20 반부패실무그룹이 도출하는 자료 보관 및 관리에 있어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임.
- (이탈리아) 반부패실무그룹 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새롭게 생겨나는 반부패 의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며, 시민사회 및 비즈니스 단체와의 상호교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의장국은 회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대중의 의견과 소셜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 (인도) 국가별 이행보고는 자기보고(self-reporting)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함.
- (EU) 채택된 고위급 원칙에 대한 이행을 우선적으로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의 결과문 및 고위급 원칙 등이 G20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에 공개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해야 할 것임.
- (멕시코) 고위급 원칙 이행 평가에 대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G20은 OAS 등과 같은 지역 협의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인터넷에 회의결과문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 필요성을 공감함.
- (스페인) 부패방지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 모델을 선호하며, 기존의 협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 차원의 어젠다에 이행 타임라인을 확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B20, C20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자료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호주) 행동계획(Action Plan) 작성시 이행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이행을 제고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됨.
- (터키)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주제별 사례에 대한 정보 제출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기술적 측면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효율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임.
- (사우디, 중국) 동 논의는 향후 반부패실무그룹의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논의로서, 금년 1년간 이루어진 2-3차례 논의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동 의제는 차기 의장국인 일

본과 공동의장국(현재 미정) 주도의 논의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 다른 국제기구와의 중복된 논의를 피하여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 향후 반부패실무그룹회의 운영에 C 모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부패실무그룹에서 제작·도출하는 자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함.

#### □ ‘19-’21 반부패실무그룹 행동계획(Action Plan)

- 반부패실무그룹은 ‘19-’21년간 행동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함.
- ‘19-’21년간 (i) 반부패 아젠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과거 G20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구하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ii) 다른 기구와 중복되지 않는 반부패 주제에 대하여 G20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킴.

항목	1.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 강화	2. 돈세탁 및 자산회복 등 금융 범죄 관련 부패를 척결하고, 국제적 협력 강화
내용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기업 운영 및 민영화, 내부고발자 보호,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회와 위험성 감지	실소유자, 자산회복, 실질적 협력, 기타 주제
항목	3. 주요 주제	4. 새로운 이슈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강구
내용	뇌물, 인프라, 스포츠	부패 측정, 부패와 성(性)

[항목별 분류 및 세부 내용]

- 우리 대표단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 일반적인 반부패 우선순위가 아니라 G20에서 합의된 우선순위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명확히 하는 문구 추가를 요청한바, 이가 반영됨.
- 내년도 의장국인 일본은 뇌물, 인프라, 내부고발자, 새로운 기술(가상화폐 등)에 대한 주제를 주요 논의 의제로 삼을 예정임을 언급함.
- 부패측정(measurement of corruption) 수단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향후 3년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예정임.

#### □ 인프라 관련 부패

- 일본은 ‘19년도 반부패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내년 주요 의제중 하나로서 인프라 부패를 다룰 예정임을 소개함. 또한 G20 의장국으로서 인프라 분야 부패는 반부패실무그룹 뿐만 아니라 G20 전체 차원에서도 주요한 이슈임을 강조함.
- 인프라 부패 예방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i)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가용성 제고, (ii)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도 반부패실무그룹 회의를 G20 인프라실무그룹과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을 밝힌바, 이에 대해 캐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의 환영의 의사를 포함.
- ‘19년도 제1차 반부패실무그룹회의는 ’19년 1.21-23(3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회의는 4월중에 개최, 제3차 회의는 정상회담(6월 25-29간 개최 예정) 이후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일정은 미정임을 알림.

#### □ 해외 뇌물

- OECD는 독일에 대한 4단계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4단계 심사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임을 소개함. 다음으로 일본의 4단계 심사는 1월에 방문실사를 시행한 후 6월에 마무리 될 예정임을 설명함.

#### □ 공공분야의 청렴성과 투명성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G20 반부패실무그룹에서 마련한 ‘공공 조달 분야의 청렴제고 원칙’, ‘정보 공개(Open Data) 원칙’ 등은 공개 계약(Open Contracting)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소개함.
- 공개 계약이란, 사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체 계약 과정 전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협업 시스템을 의미함.
- 공개 계약 데이터 기준(Open Contracting Data Standard)은 계획(Planning) → 입찰(Tender) → 수여(Award) → 계약(Contract) → 이행(Implementation)의 과정을 포함하며, 현재 G20 국가들 중 아르헨티나, 호주, 프랑스, 멕시코, 영국 등을 포함한 40여개 국가들이 참여한 의사를 밝혔음을 소개함.
- (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 G20 회원국 중 13개국이 OGP 회원국이며, 실소유자, 인프라 관련 부패, 정보 공개 등이 OGP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Open Government Action Plan의 아래 내용과 같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설명함.
- (i) 부패방지를 위한 정보 공개 강화(예 : 실소유자 등록 등), (ii) 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와 정보 기준 확립(예 : contracting 5), (iii) 조달 부문에 대한 OGP 차원의 논의

- OGP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기준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

#### □ 세션8 : 스포츠 분야 부패

- (호주) ‘18년 8월, 호주 스포츠부 장관은 “Sports 2030”이라는 국가적 스포츠 계획을 발표하였음.
- Sports 2030이란 스포츠 및 체육활동을 기술, 교육, 기업활동과 접목하여 향후 12년간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스포츠 활동 계획 및 비전을 의미함.
- Sports 2030의 우선순위는 (i) 좀 더 활동적인 호주 만들기, (ii) 국제 스포츠 대회 성과를 통한 자부심 고취 (iii) 호주 스포츠 산업 강화 (iv) 부패 없는 스포츠 만들기로 이루어져 있음.
- 스포츠 청렴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Wood Review)는 △ 스포츠 도박에 대한 국가적 규제, △ 국가스포츠청렴위원회 출범, △ 국가스포츠 재판소(조사위원회) 출범, △ 약물금지 프레임워크 강화 등을 제안함.

#### □ 2018 이행보고서

- 2017-18 행동계획상 공공/민간분야 청렴성 및 투명성, 뇌물, 실질적 협력, 실소유자, 취약 분야, 국제기구, 역량 강화 등을 우선순위로 삼고 이에 대한 G20 차원의 반부패 성과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행보고서 초안을 회람함.
- 특히 금년도 반부패실무그룹은 이해충돌방지 고위급 원칙, 공기업 청렴성 제고에 대한 고위급 원칙을 도출하였고, 3년간 이행될 2019-2021 반부패실무그룹 행동계획 및 향후 반부패실무그룹

운영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음.

- 우리나라와 독일은 공공분야 청렴제고 부분에 한국 주도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결과문에 대한 내용 언급 추가 할 것 요청하였으며, 사무국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문구 추가가 반영됨.
- 향후 일정 : 국가별 하이라이트 문구 및 수정 문구가 반영된 이 행보고서 수정안은 추후 이메일을 통하여 회람될 예정임.

#### □ G20/OECD 합동세션

-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은 최초로 합동 세션을 마련하였으며 (i) UN반부패협약, G20 고위급원칙,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 (ii) 고위험 분야 및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경험 공유, (iii) 중장기적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공통의 업무 분야 발굴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함.

##### ▶ 국가/기구별 발언

- (브라질) 별개의 국제기구간 반부패 실무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세계적 대응에 주요한 잠재력을 가진 모임이라고 생각함.
- (멕시코) 반부패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스스로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비 회원국에 모범이 되는 'leading by example'의 형태를 향후 운영 방안의 모델로 정한바 있음. 해외뇌물이야 말로 leading by example을 통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하며 G20 회원국 모두가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리투아니아) 금년 여름에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였음.

- (OECD) 부패척결은 비즈니스, 경제 성장 등과 밀접한 관계임. 실체없는 관념적 주제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임.
- (그리스)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제협력 필요하며, 문제를 인지하고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에 대해 OECD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취약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EU)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EU 차원의 수평적 장치를 마련 하였으며, 회원국의 관련 내용 법제화에 영향을 미친바 있음.
-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GRECO 권고안 등 국제적 기준이 이미 존재함.
- (UNODC) IOC와 협력하여 스포츠분야 내부고발자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임.
- (프랑스) 내부고발자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나 인프라 부패 방지 또한 주요한 이슈중 하나임. 인프라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G20 인프라 실무그룹과 반부패실무그룹간의 협력이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 또한, 2019 G20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임을 강조함.
- (OECD) 1) 2019년은 G20과 OECD ABC 20주년이 되므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임. 2) 내년에 논의될 주요 내용 : 인프라 관련 부패 및 내부고발자, 3)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 UNCAC 당사국 이 아닌 국가들 등에 대하여 조은 예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OECD WGB 의장) 내년에도 합동 세션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음.

## □ 현안 발표

- (한국) 공공기관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자체 부패방지 정책 장려제도에 대한 조사를 지난 1년간 시행하였으며 총 10개국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제출,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보고서 요약문을 공유함.
- 동 설문조사는 G20 국가들이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정책을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부 반부패 정책을 마련 또는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나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교·분석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응답한 10개국 모두 자국의 제도 또는 장치가 타국으로 전수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G20 회원국들의 풍부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부패방지 정책 장려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외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 결과보고서는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들에게 회람되었으며, 발표문은 별첨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부대행사 : 스포츠 관련 부패 방지)

## □ 주요 내용

- 스포츠분야 부패 감지 및 제재,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조직적 범죄 방지, 스포츠 부패 방지 역량 강화, 스포츠 부패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었음.
- 많은 국가들이 스포츠분야 부패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국제기구 또는 관련 협의체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방송사용권(broadcasting rights), 상업적

이용권(commercial rights), 인프라 개발권 등이 부패와 관련하여 악용당하고 있으며, 관련 사기 또는 불법 도박 또한 스포츠부패 관련 취약분야임.

- 상기 부패와 관련된 범죄가 인신매매 등까지 연계되어 발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화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UNCAC, OECD Convention 상에 존재하는 국제적 도구(tool)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tool 개발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협력방안 도출이 필요함.
- 특히 프랑스는 차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행동강령 준수 등 규칙 준수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소개함.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NGO 등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인터폴은 스포츠분야 부패 감시를 위해 새로운 기구(agency)를 조직하였으며, 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참석자들은 스포츠 부패 방지를 위한 정형화된 틀(template)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에 공감을 표하였으며, 수익을 내는 사업(business)의 차원에서 기업 준법(compliance)와 같은 반부패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함.
- 이를 위하여 반부패 기준 적용시 발생하는 상업적인 이익(commercial benefits of good governance)에 대한 수치화가 필요하며, 스포츠 비즈니스에 관련된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2018 제3차 OECD 뇌물방지실무회의)



- 멕시코에 대한 4단계 이행 평가를 비롯하여, 그리스 3bis단계 후속조치, 라트비아 2단계 후속조치, 스웨덴 3단계 후속조치, 에스토니아 3단계 후속조치 평가 등을 실시하였음.
- 특히, 우리나라는 아일랜드와 함께 그리스에 대한 평가 주심사국으로 참여하여 해외뇌물사건 관련 규정 개정, 수사와 기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개선 등을 요청
- 뉴질랜드,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영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콜롬비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이 해외뇌물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함.
- 정식 모니터링 절차 이외에 주요 법적·제도적 진전사항 평가를 위한 임시 절차를 문서화 하는 것과 관련, 폴란드(헝가리 지지)는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서화를 반대하여 논의가 중단됨.

붙임 1 회의 일정	
10.8(월)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08:30~08:45	등록
08:45~09:00	개회 • G20 공동의장(Laura Alonso, Guillaume Chabert) 환영사 • 제3차 반부패실무그룹 의제 및 진행 내용 소개
09:00~10:30	세션 1. 반부패실무그룹 향후 운영 방안 • 향후 운영방안 논의
10:30~10:45	커피 브레이크
10:45~12:15	세션 2. 반부패실무그룹 행동계획
12:15~12:35	세션 3.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관련 부패 •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 부패 근절 G20 고위급 원칙 이행 관련 질문지에 대한 UNODC와 프랑스, OECD측의 발표 및 논의
12:35~12:55	세션 4. 인프라와 반부패
12:55~14:25	점심 휴식
14:25~15:00	세션 5. 새로운 논의 주제 • UNWomen • 측정(measurement)
15:00~15:45	세션 6. 공공분야 청렴 및 투명성 • Open contracting : contracting 5 •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 Better Than Cash Alliance : 지불수단 전자화에 대하여
15:45~16:15	세션 7. 스포츠 분야 부패
16:15~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7:30	세션 8. 비즈니스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 B20과 C20 대표가 2018년 반부패 협력 관련 내용 소개
17:30~18:30	세션 9. 이행보고서 • 2018 이행보고서 초안 검토
18:30~20:30	참가자 리셉션 • Rm. George Marshall

10.9(화)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08:30~10:00	G20/OECD 합동세션 1 • 해외뇌물방지 공통 과제 및 우수사례 공유
10:00~10:15	커피 브레이크
10:15~11:45	G20/OECD 합동세션 2 • 반부패 아젠다 합동 추진
11:45~11:50	회의실 변경
11:50~12:20	세션 10. 이해충돌방지 • World Bank
12:20~13:50	점심 휴식
13:50~15:20	세션 11. 반부패실무그룹 향후 운영 방안 및 행동계획
15:20~15:50	세션 12. UNODC/UNCAC
15:50~16:05	커피 브레이크
16:05~17:15	세션 13. 국제기구 발표 • EGMONT group, World Bank, FATF, IMF, World Custom Organization
17:15~18:00	세션 14. 현안 발표 • 한국 :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장려 조사 발표 • OECD : 내부고발자 보호 • UNODC : 기소면책권에 대한 범집행 조사 발표
18:00	폐회

10.10(수) G20 스포츠분야 부패 토론	
08:00~09:00	등록
09:00~10:00	고위급 세션 • 아르헨티나, 프랑스, OECD, UNODC
10:15~12:00	세션 1. 주요 스포츠 조직에서의 부패 위험성 인지 및 척결 • 아르헨티나 유스올림픽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대표 • Natalia Parshikova, 국무장관 겸 러시아 스포츠부 차관 • Matthieu Cahen, OECD Senior Procurement Analyst and IPACS TF1 facilitator • 시민단체
12:00~13:30	점심 휴식
13:30~15:00	세션 2. 스포츠분야 부패 적발 및 처벌 • Renaud Jaune, 프랑스 반부패기관 사무관 • Nicholas Raudenski, 유럽 축구협회 청렴 담당관 • Sebastian Bley, 인터폴 부패범죄네트워크 담당관 • Federico Cafiero de Raho, 이탈리아 국가 반 마피아 검사 • 미국
15:00~15:15	커피 브레이크
15:15~16:30	세션 3. 스포츠분야 부패척결 및 청렴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 James Carr, 국제하계올림픽연합 Head of Administration Projects • Jane Purdon, 영국 스포츠 거버넌스와 리더십 대표 • Rowland Jack, I Trust Sport Ltd 창립자 • B20 대표
16:30~17:45	세션 4. 스포츠분야 부패에 대한 국제협력 • Markus Busch, 독일 법무 및 소비자보호부, G20 독일대표 • 일본 대표 • Paolo Bertaccini, 이탈리아 스포츠부 자문관 • Paquerette Girard Zapelli, IOC 윤리준범담당관 • Nicola Bonucci, OECD 법무과장
17:45~18:00	폐회 • Laura Alonso, 반부패실무그룹 공동의장

10.11(목)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 회의	
09:30~10:15	의제 10. 초청자 발표(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10:15~11:00	의제 11. 뇌물방지실무그룹 결의 연구에 대한 논의
11:00~11:30	의제 5.g. follow-up 3단계 평가 : 남아프리카 추가 서면보고
11:30~12:00	의제 12. 공식 검토절차 외의 법적/제도적 주요한 진전을 평가하는 임시 절차
12:00~12:45	의제 5.h. 3단계 평가 follow-up : 그리스 추가 서면보고
12:45~13:00	의제 5.b. 4단계 평가 : 멕시코에 대한 평가보고서, 권고문, 요약보고서 및 보도자료 3차 검토
13:00~14:30	점심 휴식
14:30~14:45	의제 13. 스포츠분야 부패 분야에서 OECD 활동
14:45~15:15	의제 14. 기타 국제기구 보고서
15:15~15:45	의제 15. IMF와 뇌물방지작업반 상호 거버넌스 협력 강화를 위한 체계
15:45~16:00	의제 16. 국제관계활동 : Initiatives in Africa, Asia-Pacific,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ACN), Latin America,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16:00~16:15	의제 17. 2019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Global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Forum) 보고
16:15~16:45	의제 18. 2009 뇌물방지권고문 검토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자문 대비
16:45~17:15	의제 5.i. 3단계평가 follow-up : 에스토니아 추가 서면보고
17:15~17:45	의제 5.j. 3단계평가 follow-up : 아이슬란드 추가 서면보고
17:45~18:00	의제 19. 기타 논의사항

## 붙임 2 이해충돌방지 고위급 원칙 최종본

### G20 High-Level Principle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공공부문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에 대한 G20 고위급 원칙 FINAL 최종

#### Introduction and context 서론 및 배경

The G20 has long recognised the necessity of promoting high integrity standards on behalf of public officials. In this regard, G20 countries have previously committed to a number of measures to strengthen integrity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commitments related to effective asset disclosure systems and to taking steps to establish effective organisational structures to combat corruption. G20은 오랫동안 공직자를 대신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G20 회원국들은 효과적인 재산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척결을 위해 효과적인 조직 구조를 마련하는 등 공공분야 청렴성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었다.

In addition to the previous commitments made by G20 countries, the G20 is further committed to taking concrete steps to prevent and manage 'conflict of interest', which arise when there is an actual, potential or apparent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the private interest of a public official, in which the official's private-capacity interest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lthough the majority of G20 countries have laws, policies and guidance, opportunities remain for strengthening system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이와 같은 기존 약속에 더하여, G20 회원국들은 공직자의 사적 역량 및 이해관계가 공무수행과 책임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쳐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간의 충돌이 실질적, 잠재적 또는 명확하게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할 것을 추가적으로 약속했다.

As a result,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remains a priority issue for G20 countries, as reflected in the 2017-2018 Action Plan of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The Action Plan includes the commitment to take action to “promote a culture of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in our institutions, including by preventing and resolving conflicts of interests affecting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Argentina set ‘conflict of interest’ as a priority issue for the 2018 G20 Presidency with the aim to share experiences on how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ffecting public officials,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of financial disclosure systems. In support of these initiatives, the Argentine G20 Presidency has pursued the following two products:

이에 따라,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2017-18 행동계획에 반영된 바와 같이,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G20 회원국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상기 행동계획에는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을 예방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우리 기관의 청렴 문화와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는 2018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이해충돌을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하여 자산공개시스템(financial disclosure systems)의 가능성을 감안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다음의 두 가지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한다.

- *High-Level Principle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These build upon existing policy standards and good practices, in particular those from the United Nations and the OECD. They identify a set of key concrete actions that governments could commit to undertake in accordance to their needs and country context. 공공분야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고위급 원칙. 이 원칙은 기존의 정책적 기준과 모범사례, 특히 UN과 OECD의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고위급 원칙은 각국 정부가 그들의 필요와 국가적 상황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일련의 핵심적인 구체적 행동을 명시한다.
- *Good Practices Guide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These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High-Level Principles by sharing experiences and highlight good practices on how to deal with specific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 

공공분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사례 가이드. 이 가이드는 구체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강조함으로써 고위급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These High-Level Principles build on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standards such as those from the United Nations, OECD, World Bank, Council of Europ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frican Union, and APEC, as well as previous G20 High-Level Principles in related areas, and knowledge work such as that produced by the World Bank and the 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동 고위급 원칙은 UN, OECD, 월드뱅크, 유럽평회의, 미주기구, 아프리카연합 및 APEC 또한 동 분야와 관련된 이전의 G20 고위급 원칙과 더불어, 월드뱅크 및 자산회복 이니셔티브의 지식과 같은 국제적 방침과 표준을 토대로 한다.

#### Applicability, scope and definitions

#### 적용가능성, 범위 및 정의

The following G20 High-Level Principles identify a set of key concrete actions that G20 countries commit to undertake, in accordance to their needs, country context and domestic legal principles, to prevent actual, potential and apparent conflicts of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e Principles, the term ‘public official’ is used generically. Each country shall define the term and apply it in line with their national laws and public sector context, bearing in mind the UNCAC definition of public officials. The High-Level Principles focus on three core pillars: 1) developing standards and a system to prevent and manage ‘conflict of interest’, 2) fostering a culture of integrity and 3) enabling effective accountability.

아래 G20 고위급 원칙에는 G20 회원국의 필요성과 국가적 상황 및 국내 법적 원칙에 따라 실제적이고 잠재적이며 명백한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핵심 조치들이 명시되어있다. 동 원칙의 목적에 따라, ‘공직자’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각 국가들은 UN 반부패협약에서 사용되는 공직자의 정의를 감안하여 공직자를 정의하고 국내법과 공공분야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동 고위급 원칙은 다음 3가지에 핵심을 둔다. 1)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 개발, 2) 청렴문화 육성, 3) 효과적인 책임성 담보

Developing standards and a system to prevent and manage 'conflict of interest'	<p>이해충돌 예방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표준 개발</p> <p><b>Standard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b> <b>공직자의 행동 표준</b></p> <p>1. G20 countries should establish specific, coherent and operational standard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se standards should provide a clear and realistic description of what circumstances and relationships can lead to a 'conflict of interest' situation. These standards should further advance public officials' understanding and commitment to a) serving the public interest, and b) preventing any undue influence of private interests that could compromise, or appear to compromise, official decisions in which they officially participate.</p> <p>G20 회원국들은 공직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운용 가능한 행동표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에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발하는 상황과 관계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들은 공직자들이 a) 공익을 도모하고 b) 공무수행 의사결정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것이 우려되는 사익의 지나친 영향력을 방지해야 한다는 인식과 책임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p> <p>2. G20 countries should further consider the need for additional standards of conduct for those public officials working in high-risk areas, reflecting the specific nature of these positions, exposure to conflict of interest risks and public expectation.</p> <p>G20 회원국들은 이해충돌 고위험군 공직자에 대해 이러한 직위의 특수성과 이해충돌 위험 노출 위험 및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맞춤형 행동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p>
	<p><b>Applying the conflict-of-interest standards</b></p> <p><b>이해충돌 기준의 적용</b></p> <p>3. G20 countries should put into place clear means for developing, implementing and updating conflict-of-interest policies at the appropriate level in the public sector. The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conflict-of-interest policies should be periodically reviewed using an evidence-based approach. G20 countries should also consider consulting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when developing and reviewing their conflict-of-interest policies.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the designation of one or more special bodies to</p>

	<p>oversee system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p> <p>G20 회원국들은 적절한 수준으로 공공분야의 이해충돌 정책을 개발, 이행 및 보완하기 위한 명확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충돌 정책의 이행, 효과성, 적절성은 증거기반 원칙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G20 회원국들은 이해충돌 정책을 개발하고 검토할 때 민간 분야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시스템을 감독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특별기구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p>
	<p><b>Risk-based approach to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b></p> <p>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위험성 기반 접근</p> <p>4. G20 countries should identify "at-risk" activities and duties that create heightened risks for potential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and establish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G20 countries should establish effective organisational responses through, as appropriate, specialised bodies established for managing conflict-of-interest and/or competent officials within each organisation. G20 countries should pay specific attention to safeguarding the public interest in the recruitment, nomination and promotion of public officials. Particular due diligence should be applied as appropriate to assessing and resolving conflicts of interest before individuals undertake public functions, as well as establishing appropriat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such as cooling-off periods.</p> <p>G20 회원국들은 잠재적으로 이해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과 의무를 인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G20 회원국들은 적절한 경우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한 기구 그리고/혹은 각 기관의 역량 있는 공직자 등을 통해 효과적, 조직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G20 국가들은 공직자 채용, 임명, 승진 등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이 공직을 수행하기 전에 이해충돌을 평가 및 해소하고, 취업제한기간(cooling-off period)같은 퇴직 후 취업제한 등을 정하는 등 제제를 마련해야 한다.</p>
Fostering a	<p><b>Open organisational culture where dealing with conflict of interest matters can be freely raised and resolved</b></p>

culture of integrity	<p><b>이해충돌 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b></p> <p>5. G20 countries should nurture an open organisational culture in the public sector, taking steps to promote the pro-active identification and avoidance of potential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by public officials. This should include ensuring that public officials can seek guidance and advice from competent officials regarding how to avoid potential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 without fear of reprisal.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disclosures from misuse.</p> <p>G20 국가들은 공직자가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식별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열린 조직문화를 육성해야 한다. 이는 공직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 담당 공직자로부터 안내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p>
	<p><b>Averting conflict of interest risks in public decision making</b> <b>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b></p> <p>6.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effective management policies, processes, and procedures are established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in public decision making in order to safeguard the public interest and avoid undue influence. Such procedures could include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s, providing ethical advice on the application of conflict-of-interest policies to specific circumstances, recusal from decision-making as appropriate, the use of ethics agreements and other arrangements, such as reviewing interest declarations, recusal statements and orders, to mitigate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p> <p>G20 회원국들은 공익을 수호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정책과 과정,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관리와 내부통제,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해충돌 정책 적용을 할 수 있는 윤리 기준 제공, 의사결정시 적절한 회피 조치, 잠재적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윤리 조약을 활용하거나 이해 선언문, 회피 선언 과 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p>

	<p>7. G20 countries should establish guidance and mechanisms, such as disclosure of interests, for members of boards, advisory committees and expert groups, in order to prevent unduly influencing the public decision making processes.</p> <p>G20회원국들은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자문위원회, 전문가집단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 공개 등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p>
	<p><b>Raising awareness, building capacity and commitment</b> <b>인식제고, 역량구축 및 책무 이행</b></p> <p>8. G20 countries should endeavour to ensure that sufficient information, guidance, training and timely advice are provided to public officials upon taking up positions, throughout their careers, and upon leaving their position, in order to enable them to identify and manage actual, apparent and potential conflict-of-interest situations.</p> <p>G20 회원국들은 공직자들이 실질적이고 명백하며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지침, 훈련 및 적시의 조언등을 임용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 제공해야 한다.</p>
	<p><b>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b> <b>민간분야 및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b></p> <p>9.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is a shared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ence G20 countries should take steps to promote awareness with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standards of conduct in place to prevent and mitigate public officials' conflicts of interest, as well as to promote the core values of public service in the society at large.</p> <p>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공통된 책임이다. 따라서 G20 회원국들은 이해충돌 방지 및 완화를 위한 행동표준을 마련하여 민간 분야 및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공공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Enabling effective account ability	<p><b>Disclosure, transparency and verification</b> <b>공개, 투명성 및 검증</b></p> <p>10. G20 countries should adopt and implement appropriate and effective mechanisms for the prevention,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s, such as periodic financial, interest and asset disclosure systems for relevant public officials consistent with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Asset Disclosure by Public Officials and applicable law.</p> <p>G20 회원국들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G20 고위급 원칙’에 따라 관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금융, 이익, 재산 공개제도같은 이해충돌의 예방, 인지, 관리를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매커니즘을 도입하고 이행해야 한다.</p> <p>11.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declarations systems or are considering establishing them, are encouraged to support each other, where domestic law and institutional mandates permit, facilitating the identific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n public officials’ interests abroad and/or sources that could be consulted by foreign authorities to gather and/or confirm information on officials’ interests abroad. In this regard, G20 countries should make appropriate use of new technologies, without prejudice to personal data protection.</p> <p>신고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고려중인 국가들은 국내법 및 제도적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서로 공조해야 하며, 공직자의 해외 이익 그리고/또는 해외 기관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확인 및 교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려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 회원국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p>
	<p><b>Effective Enforcement</b> <b>효과적인 집행</b></p> <p>12. G20 countries should implement adequate mechanisms to resolve identified conflicts of interest, as well as enforcement mechanisms for proportionate and timely sanctions for violations of conflict-of-interest policies. This could include a specific set of disciplinary measures.</p>

	<p>G20 회원국들은 확인된 이해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 정책 위반 시 적시에 적절한 제재를 위한 이행 매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부과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정한 징계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p>
--	------------------------------------------------------------------------------------------------------------------------------------------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Organising Against Corruption;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Asset Disclosure by Public Officials; G20 Guiding Principles to Combat Solicitation; G20 Anti-Corruption Open Data Principles; G20 Principles for Promoting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the G20/OECD Compendium on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the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Countering Corruption in Customs.

## G20 High-Level Principles

### for Preventing Corruption and Ensuring Integrity in State-Owned Enterprises

#### G20 공기업 부패예방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원칙

##### FINAL

##### 최종본

#### Introduction and context

##### 서론 및 배경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re a significant presence in the global economic landscape. Currently around 22% of the world's largest companies are owned or controlled by the state, and that share is growing as SOEs internationalise their operations and as economies with large SOE sectors experience high rates of growth. State ownership typically occurs in sectors such as the network industries, public utilities, and the extractive and financial sectors, on which most of the private commercial sector depends for its downstream competitiveness. Moreover, the operation of SOEs can have important fiscal implications and may give rise to liabilities, including in legal terms, to the government that is responsible for their finances.

공기업은 전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대기업 중 약 22%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운영을 글로벌화하고 대규모 국영기업을 가진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소유는 네트워크 산업, 유틸리티, 채굴 및 금융 부문 등에서 발생하며, 이들 부문은 대부분 민간 상업 부문에서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다. 더불어, 공기업의 운영은 공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에 중요한 재정적 영향을 주거나 법적 책임을 포함한 책임을 발생시킨다.

The governments of G20 countries have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integrity in SOEs, as recognised in the 2017-2018 Implementation Plan of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nd as prioritised by Argentina as a G20 ACWG priority for its 2018 G20 Presidency. As the world's largest foreign traders and investors all G20 members have a direct interest in promoting a culture of integrity in SOEs, including by tackling corruption, enforcing adequate legal frameworks against such corruption and ensuring effective implementation by their SOEs of all relevant laws and ethics rules. Leading by example in this area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governance and integrity of SOE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G20 회원국 정부는, 2018년 G20 의장직을 맡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우선순위로 제안하여 2017-18 이행계획에서 인정된 것처럼, 공기업 내 부패해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G20 회원국들은 전세계 가장 큰 해외 무역거래국이자 투자국으로서, 공기업 부패 척결을 위한 적절한 법제도를 시행하고 공기업이 모든 관련 법과 윤리규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공기업 내 청렴문화 촉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선도해 나가는 것은 전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공기업의 청렴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G20 countries encourage, and in their jurisdictions will take steps to assist with, legal and practical

measur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ighting corruption in SOEs; strengthening awareness among SOE managers and employees of the need to combat corruption; encouraging SOE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and avoid corruption; strictly enforcing rules criminalising corruption and related misconduct; and managing and mitigating any damage inflicted by corruption.

G20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법적 실천적 조치를 장려하고, 자국내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기업 내 부패 척결, 공기업 관리자와 직원들에게 부패 척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청렴성 제고와 부패 회피를 위한 공기업의 노력 제고, 부패 및 관련 위반을 범죄화 하는 강력한 규정의 이행, 부패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고 경감하는 것 등

#### Applicability, scope and definitions

##### 적용대상, 범위, 정의

The High-Level Principles are guidance for G20 and other governments and for those state representatives that are charged with exercising ownership rights in SO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he High-Level Principles should moreover provide useful guidance to SOEs' governance bodies and employees on preventing corruption and promoting integrity in their organisations. These High-Level Principles draw on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according to which the state should act as an active and informed owner of enterprises, but should abstain from intervening in their daily management. Company-internal methods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individual SOEs can be mandated by the state, but should normally be implemented by the corporate manage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ubject to oversight by the relevant auditing bodies. SOEs should be expect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culture of integrity.

고위급원칙은 G20 회원국 및 기타 국가의 정부와, 정부를 대신해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에 대한 지침이다. 고위급원칙은 또한 공기업 관리조직과 직원들에게 부패예방과 청렴성 촉진에 대한 유용한 지침이 된다. 고위급원칙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과거 우수사례 및 지침을 참고하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는 적극적이고 정통한 기업 소유자로서 행동하되 일상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개별 공기업 내 부패예방을 위한 기업의 내부적 수단은 국가가 명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업 내 이사회 감독하에 관리조직에 의해 이행되고, 관련 회계감시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청렴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행해야 한다.

G20 countries differ with respect to the range of institutions that they consider as state owned enterprises. Each country may have its own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n SOE according to its own domestic legal framework.

공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관의 범주는 G20 국가별로 상이하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 법적 체계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각각 다르게 내린다.

These High-Level Principles focus on SOEs at the central or federal levels of government. They may also be applied at the subnational level of government. A frequently cited definition of the institutions of state and the SOEs' governance bodies is put forward by the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15). Throughout the present document, the "ownership entity" is the part of the state responsible for the exercise in ownership rights of any given SOE. It can be understood to mean either a single state ownership agency, a coordinating entity or a government ministry responsible for enterprise ownership.

고위급원칙은 중앙 또는 연방정부의 공기업에 초점을 두었다. 동 원칙은 지방단위 정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 및 공기업 감독 기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OECD 공기업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2015)에 나와있다. 동 문서에서는 “소유 기관”이라고 하면 해당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일부를 말한다. 이는 단일한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공동 조정기구이거나 기업 소유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일 수도 있다.

For the purpose of the Principles, the word “corruption” generally covers acts of corruption within the scope of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The word “integrity” is taken to mean adherence to applicable rules, including laws, regulation and company-internal rules of conduct. 고위급원칙의 목적상, “부패”는 일반적으로 UN반부패협약상의 부패행위를 말한다. 청렴성”은 법률, 규정, 내부 행동강령 등 적용되는 규칙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 **Recommendations:**

#### **권고사항**

### **A. INTEGRITY OF THE STATE 국가의 청렴성**

*State-owned enterprises are overseen by governments and public officials. Integrity in SOEs is therefore based upon a more general commitment to good practices and high standards of conduct among public officials.*

정부와 공직자가 공기업을 감독한다. 따라서 공기업내 청렴성은 공직자에 대한 행동강령과 우수사례라는 보다 일반적인 책임에 기반한다.

**Principle 1: Apply high standards of conduct to those exercising ownership of SOEs on behalf of the general public**

**제1원칙 : 일반 국민을 대신하여 공기업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이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G20 countries should set high standard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and state representatives exercising the State’s ownership rights or overseeing SOEs. Integrity in SOEs is moreover anchored in a more general commitment to good practices and high standards of ethical behaviour among all public officials. SOEs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ir corporate and commercial purposes subject to applicable anti-corruption laws, and not be misused as conduits for illicit activities.

G20 회원국들은 국가의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공기업을 감독하는 공직자와 국가의 대표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행동강령을 정해야 한다. 더불어 공기업 청렴성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행위 규정과 우수사례라는 보다 일반적인 책임에 기반해 결정된다. 공기업은 적용 가능한 반부패 법에 따라 기업과 상업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불법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Principle 2: Establish ownership arrangements that are conducive to integrity**

**제2원칙 : 청렴성을 유도하도록 소유제도를 수립한다.**

G20 countries should design their State ownership arrangements for SOEs in a way that is supportive of high standards of integrity, including, where feasible and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al systems, *inter alia* by separating ownership from other government functions and minimising opportunities for inappropriate ad-hoc interventions and other undue influence by the State in SOEs. The ownership structure and internal transactions should, without compromising the autonomous corporate nature of SOEs, be transparent and the state should encourage profess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relevant state authorities.

G20 회원국들은 자국 법률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정부 기능과 소유권을 분리하고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부적절한 수시 간섭이나 기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높은 청렴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소유 구조와 내부거래는, 공기업의 독자적 상업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투명해야 하며, 국가는 관련 국가기관과의 전문적인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 **B. OWNERSHIP AND GOVERNANCE 소유권과 거버넌스**

*States should act as active and engaged owners, holding SOEs to high standards of performance and integrity, while also refraining from unduly intervening in the operations of SOEs or direct control of their management.*

국가는 적극적인 소유자로서, 공기업이 성과와 청렴성에 있어 높은 기준에 맞추도록 하되,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이나 경영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줄이도록 한다.

**Principle 3: Ensure clarity in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and in the State’s expectations**

**제3원칙 : 법과 제도 및 국가 계획에서 명시성을 확보한다.**

The legal framework outlining an SOEs’ governance structure and policies should clearly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owners, boards, executive management and employees in preventing, detecting and reporting corruption in SOEs.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the state’s intentions and expectations as an enterprise owner are clearly defined, ideally by developing a formalised state ownership policy supplemented by company specific objectives for individual SOEs. G20 countries should clarify through formal rules which anti-corruption legal framework is applicable to their SOEs.

공기업의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을 담은 법적 제도는 공기업 내 부패 예방, 인지, 신고에 있어서 소유자, 이사회, 경영진, 직원의 책임을 각각 명시적으로 규정해야한다. G20 회원국들은 개별 공기업의 기업별 구체 목표로 보완된 공식화된 국가소유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소유자로서의 국가의 의도와 계획이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해야한다.

**Principle 4: Act as an informed and active owner with regards to integrity in SOEs**

**제4원칙 : 공기업내 청렴성에 있어 적극적이고 정통한 소유자로서 행동한다.**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relevant agen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ownership entity if applicable, monitor SOEs’ corruption risks,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efforts as part of risk analysis and performance monitoring. Information-sharing among the relevant State agencies should occur, particularly when State ownership is not centralised in a single agency or ministry, or when other government functions

are involved in monitoring SOEs, such as Supreme Audit Institutions or State Comptrollers. G20 countries should also, where applicable, make their SOEs follow good governance practices adopted by commercial companies.

G20 회원국들은 소유 기관 등 관련 부처가 위험 분석과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부패 위험, 청렴성, 반부패 노력을 감독하도록 해야한다. 2개 이상의 기관이나 부처가 공기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기타 감사원 등 정부 기능이 공기업 감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부처간 정보교환이 있어야 한다. G20 회원국은 또한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자국의 공기업이 민간 기업이 채택한 굿거버넌스 관행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C. CORRUPTION PREVENTION 부패 예방

*A cornerstone of ensuring integrity and fighting corruption in SOEs is effective internal compliance and other programmes or measures designed to prevent, mitigate, detect and enforce rules on corruption-related risks. Essential elements should include corporate codes of conduct, compliance functions, integrated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and external controls. Elements of such good practices should be integrated into SOEs'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or could take the form of specific integrity programmes.*

*공기업 청렴성 확보와 부패적결의 핵심은 효과적인 내부 컴플라이언스와 부패 관련 위험을 예방, 감축,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조치이다. 필수항목으로는 기업 행동 강령, 준법 기능, 위험통합관리,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있다. 이 같은 항목들은 공기업의 기업거버넌스 구조에 통합되거나 별도의 청렴 프로그램 형태를 갖춰 마련해야 한다.*

**Principle 5: Require adequate mechanisms for addressing risks of corruption**

**제5원칙 : 부패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SOEs understand, manage and, when appropriate, communicate corruption risks to their owner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compliance and other corruption-related risks. SOEs should develop risk management systems consistent with corporate best practices and tailored to responding to the risks in the sectors where they operate. Where possible and appropriate, integrity mechanisms should be based on risk analysis that addresses corruption-related risks. Risk detection regarding corruption may also benefit from the support of external experts.

G20 회원국들은 공기업이 준법경영과 기타 부패 관련 위험 등 부패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필요시 소유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한다. 공기업은 기업 우수 관행을 따르면서 해당 사업 분야내 위험에 대응하도록 맞춰진 위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한다.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청렴 매커니즘은 부패관련위험을 다루는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부패 위험 인지는 공기업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Principle 6: Require adoption of high quality integrity mechanisms within SOEs**

**공기업 내 수준높은 청렴 제도 채택이 필요하다.**

G20 countries should hold SOEs to generally high integrity requirements. Without unduly intervening in the management of individual SOEs, countries should take all relevant steps to encourage the strengthening of internal SOE governance, for instance through internal controls that are integrated into corporate governance, effective risk management, and auditing in line with national laws and agreed standards. Integrity mechanisms should be monitored by SOEs' senior management and, in particular, by their boards of directors. Key tools coul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rporate codes of conduct or ethics, whistleblower or complaints mechanisms and specific policies for high-risk areas such as gifts, hospitality, procurement, asset divestment, conflicts of interest and lobbying.

G20 회원국은 공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해야한다. 개별 공기업 관리에 부적절하게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는 공기업 내부 거버넌스의 강화를 장려하기 위한 모든 관련 조치, 이를테면 기업 거버넌스와 통합된 내부 통제, 효과적인 위험관리, 국내법과 합의된 기준에 따른 회계감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렴 제도는 공기업의 고위 관리층, 특히 이사회에서 감독해야 한다. 핵심 수단으로는 기업의 행동 또는 윤리강령, 내부 고발자 또는 신고 제도, 선물, 향응, 조달, 자산처분, 이해충돌, 로비 등 취약 부분별 정책이 있다.

**Principle 7: Safeguard the autonomy of SOEs and their decision-making bodies**

**제7원칙 : 공기업의 자치권과 공기업의 정책결정 기구를 보호한다.**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SOEs are overseen by effective and competent boards of directors, as well as executive management, who are empowered to oversee the companies' management and operations.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board appointment criteria are clear, fair and consistent, and that selection processes, as well as subsequent evaluations, include due diligence to establish the personal integrity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The respective roles allocated to boards and executive managers should be clearly delinea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agreed good practices.

G20 회원국들은 공기업이 기업 관리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효과적이고 유능한 이사회와 경영진에의해 감독받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G20 회원국들은 이사 임명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며 일관되며, 선발절차와 선발 이후 평가에 후보자개인의 청렴성과 전문성에 대한 실사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와 경영진 각각의 역할은 국내법과 일반적인 우수사례에 맞게 명시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 D. CORRUPTION DETECTION AND RESPONSE 부패 감지와 대응

*To ensure proper detection of corruption, as well as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it is important that key processes are entrusted to institutions that are granted with the necessary independence, and that individuals who may be party to irregular practices are unable to suppress said processes or public information regarding their conduct. Strong and transparent external auditing bodies, including for example Supreme Audit Institutions and State Comptrollers, are means of ensuring financial probity and informing shareholders about overall company performance.*

*부패를 제대로 인지하고 수사 및 법 집행을위해, 필요한 독립성을 가진 외부 기관에 핵심 절차를 위임하여, 비리 관행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이 그런 절차나 개인 행위에 대한 공개 정보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실하고 투명한 외부 회계감사 절차는 재정적 정직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전체 성과를 알리는 수단이다.*

**Principle 8: Establish appropriate accountability and review mechanisms for SOEs**

**제8원칙 : 공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과 점검 제도를 수립한다.**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SOEs are subject to adequate controls regarding their operational performance. In some national contexts this may include occasional or regular reporting to the national legislature or other elected, or governing, bodies of State, and the publication of regular reports on the performance of SOEs. It may also include assuring that SOEs' financial statements are subject to regular audits according to high-quality auditing standards. In this context, governments may wish to consider supplementing their state audit functions with independent audits by professional auditors, e.g. private sector auditing firms.

G20 회원국들은 공기업이 운영성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입법부나 기타 선출직, 국가기관에 대한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 보고와 국영기업 성과 보고서 정기 발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회계 기준에 따라 정기적 회계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민간 회계법인 같은 전문 감사관에 의한 독립적 회계 감사를 사용하여 국가의 회계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Principle 9: Taking action and respecting due process for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제9원칙 : 조치를 취하고 조사 및 기소에 대한 절차를 존중한다.**

G20 countries should ensure that all cases of corruption involving SOEs are investigated and prosecuted according to domestic legal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G20 High-Level Principles on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Corrup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spect is encouraged. This includes ensuring that the SOEs, as well as government agencies cooperate fully with the relevant enforcement authorities. G20 countries should encourage self-reporting by SOEs that have detected irregular practices. Also, effective whistleblowing procedures and prot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assurances to potential whistle blowers that they will be protected from retaliation for reporting in good faith suspected acts of corruption and other wrongdoing.

G20 회원국들은 '부패에 대한 법인의 책임에 대한 G20 고위급 원칙'에 따라, 공기업이 연루된 모든 부패 사건을 자국 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공기업과 정부기관이 집행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포함된다. G20 회원국들은 공기업이 비리를 탐지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장려해야한다. 또한 공기업의 고유한 특성하에서, 잠재적 내부고발자에게 부패행위 및 기타 비리에 대한 선의의 신고에 대해 보복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내부고발 절차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Principle 10: Invite the inputs of civil society, the public, media and the business community**

**제10원칙 : 시민사회, 국민, 언론, 기업계의 참여를 요청한다.**

G20 countries should, where possible and appropriate, cooperate with stakeholders such as civil society, trade unions,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and the public and media in identifying and addressing problems of corruption in SOEs. This includes providing accessible channels for stakeholders to raise concerns, including anonymously and subject to appropriate protections.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State or SOE representatives, who may themselves be party to irregular practices, are not empowered to silence or stifle criticism.

G20 회원국들은 가능한 경우 공기업 내 부패 문제를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 노동조합,

민간부문 대표, 일반 국민, 언론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익명의 혹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고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리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국가 또는 공기업 대표에게 비판을 잠재우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OECD (2016),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Global Marketplace: A Challenge or an Opportunity?*, OECD publishing.

Moreover, the presence of SOEs may affect the private sector's ability to participate in these sectors.

For example, the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are addressed to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makers, make reference to the *OECD 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 as a point of reference for the state ownership entity.

**DRAFT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2019-2021**  
*Revised version*

**Reducing corruption remains a top priority for the G20.** Corruption continues to be at the heart of many of the challenges the world faces. It still represents a significant threat to economic growth and market integrity. It undermines good governance, erodes the trust that people place in public institutions, corrodes decision-making, distorts competition and resource allocation, impedes economic development, may lead to social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facilitates organized crime and may contribute to terrorism financing. No country is immune and governments cannot tackle it alone: we need collective ac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as well as the support of business and civil society to help prevent and uncover corruption.

**Since 2010, when we established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 a number of actions have been undertaken.** All G20 members have now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e have developed a series of sectoral and cross-cutting initiatives, resulting in the establishment of G20 High Level Principles, guidelines, sharing of experiences and compendiums of good practices in a number of areas, helping each of our countries to take national actions and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have intensified cooperation with business and civil society and interaction with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 as to boost the international fight against corruption.

**More needs to be done.** In particular, we need to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of our past commitments, which will be one of the priorities of the ACWG in the next three years. Leading by example and building on our political leadership, we will share views and best practices o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issues, and inspire new ideas and projects among ourselves as well as in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on G20 countries. We will continue to develop targeted new actions, focusing our work on key topics where the G20 can best add value, while avoiding duplication of work being undertaken elsewhere. In doing so, we will seek to inject political momentum and to work with others,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siness and civil society, in the global response to corruption.

**In 2019-2021, the ACWG will (A) adapt its working methods and mechanism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past G20 commitments and increase the impact of our anti-corruption agenda; and (B) develop further targeted actions where the G20 can best add value, without duplicating work being undertaken elsewhere, notably to strengthen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ackle financial crime related to corruption, including tackling money laundering and recovering stolen assets; address agreed key topics, such as foreign bribery and corruption related to infrastructure, sports and extractive industries;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consider possible actions on emerging issues, such as the measurement of corruption and the gender impact of corruption. These priorities are detailed in the annex.**

The 2019-2021 Action Plan will be complemented each year by a yearly work program and an annual progress report. Both documents will be published on the G20 website.

The ACWG will work closely with other G20 work streams, the C20 and B20, and non G20

countries. They are all important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orruption.

We thank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ir continued support in our shared endeavor and welcome their renewed commitment to continue working with us on this agenda.

**Annex**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2019-2021**

**The ACWG will:**

To this end, the ACWG will in particular:

- Share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ies and actions.
- Enhance transparency and inclusivity of the UNCAC review mechanism by committing to: hosting country visits;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cluding by inviting them to country visits; publishing the full reports of reviews and self-assessment checklists; and responding to recommendations and making those responses public.
- Strengthen interactions and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work streams while avoiding duplication, within the G20 as well as with other relevant stakeholders, in particular the business community and civil society, non G20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Support the provision of effective and efficient technical assistance to tackle corruption.
- Focus stronger political attention and leadership on anti-corruption priorities.
- Deepen the accountability of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actions in addressing corruption, including by setting concrete, practical and time-bound commitments where appropriate, continuing to publish an annual progress report.
- Explore ways to better assess our implementation efforts, including by using existing review mechanisms done by other bodies, in order to boost the impact of our anti-corruption agenda.

To this end, the ACWG will take concrete action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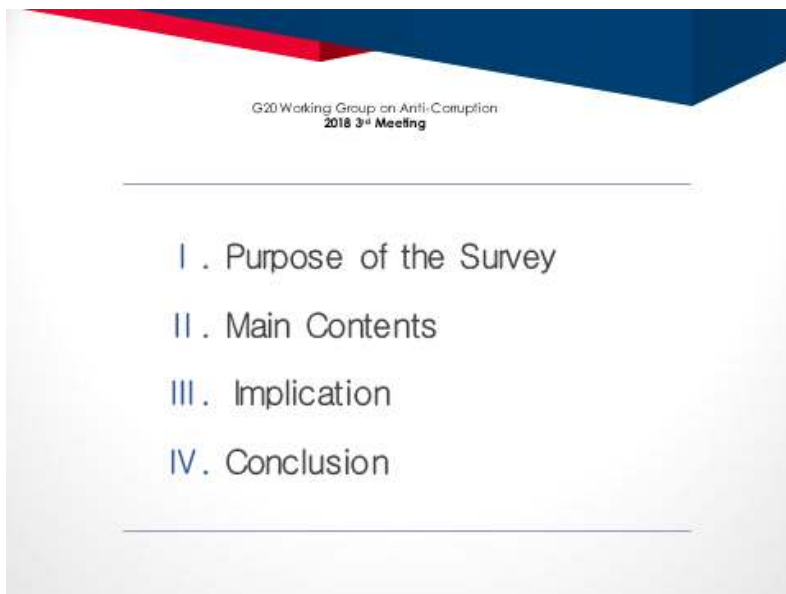
- ***In the public sector:*** Building on existing G20 High Level Principles, including the 2018 High Level Principle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 the ACWG will seek to develop further actions. ACWG priorities

will include: promoting the use of open data; identifying and addressing corruption risks in public procurement, budget processes and revenue administration; encouraging public institutions to implement anti-corruption initiatives; continue to consider ways of protecting and strengthening judici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deepening anti-corruption measures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 
- ***In the private sector:*** Building on the 2015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Private Sect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the ACWG will work with the business community and civil society to further explore means of promoting a culture of integrity and supporting private sector anti-corruption initiatives, including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ACWG priorities will include promoting and highlighting existing standards and guidance on anticorruption compliance programs for companies.
- ***In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nd in privatization processes:*** Building on the 2018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n SOEs, ACWG priorities in this area will include shar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n the applicability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to SOEs, including anti-bribery legislation; and integrity in privatization processes.
-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the ACWG will assess and identify best practices, implementation gaps and possible further protection measures as appropriate.
- ***Identifying the opportunities and risks of new technologies:*** the ACWG will share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relating to opportunities and risks of new technologies in relation to corruption.
-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of beneficial ownership is critical to preventing and exposing corruption, preventing the laundering of corrupt proceeds and contributing to the tracing, recovery and return of corruptly stolen assets. It is also key to maintaining integrity and trust in tax administration systems. The ACWG will review progress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and of the 2014 G20 High Level Principles on Beneficial Ownership Transparency. The ACWG will also explore ways, including on capacity 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to support other countries to implement beneficial ownership standards and promote the utilization of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to tackle corruption and related money laundering.
- ***Asset recovery:*** The ACWG will explore ways to strengthen domestic measure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dentify, trace, and freeze or seize the proceeds of crime and set out actions to improve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countries on the management and return of recovered asset, including with regards to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Practical cooperation:*** The ACWG will continue its work to strengthen further practical cooperation to prevent, detect, investigate and prosecute corruption, combat money laundering, deny safe haven to corrupt officials and those who corrupt them and effectively enforce anti-corruption laws.

- ***Other issues:*** The ACWG will continue to explore possible actions in relation to the link between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human trafficking and wildlife traffi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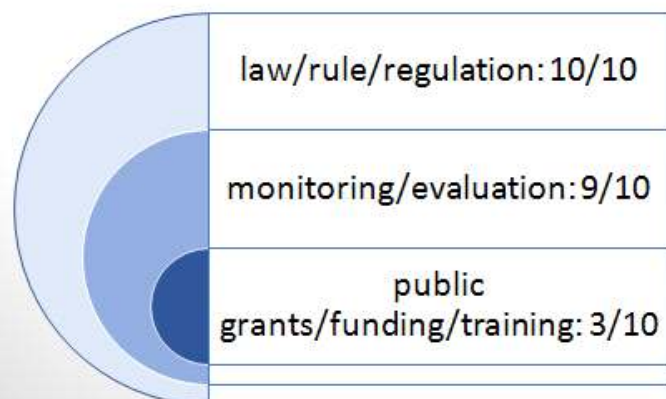
- ***Bribery:*** Bribery imposes a heavy price on business and on society as a whole. Criminalizing and tackling bribery has been a priori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ACWG in 2010. G20 priorities will include: Criminalizing bribery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in all G20 countries by the end of 2019; establishing measures to prevent bribery and actively enforcing foreign bribery laws; deepening the interac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with the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to prepare the adherence of all G20 countries to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is at the forefront of the international agenda. As it is an area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rruption, the ACWG will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agenda by identifying the key anti-corruption features that are needed to ensure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 this sector. Interaction with other fora, including other G20 working groups, but also B20 and C20, will be essential to ensure consistency.
- ***Sports:*** Corruption in sports is a multifaceted issue which demands an international, multi-stakeholder and pragmatic approach as well as political commitment. Building on the work and initiatives launched in previous years, the ACWG will share information and good practices on addressing various forms of corruption in sport as well as follow and support as appropriate the ongoing development of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standards and compliance frameworks in sport.
- ***Extractive Industries:*** The ACWG will review and update as appropriate the 2015 Targeted Approaches to Addressing Corruption in the Extractive Industries Sector and identify possible further actions, including deepening interaction with, and impact of,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to further enhance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ing and revenue management linked to the extractive industry.
- ***Measurement of corruption:*** The ACWG will deepen its understanding of corruption indicators an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asures.
- ***Corruption and gender:*** The ACWG will deepen its understanding of the gender impact of corruption and discuss possible actions. The ACWG will also discuss how the gender dimension could be included in anti-corruption programming and policies.



## II

## Main Contents

### 1. Mechanisms to enforce the measures



### 2. Law/regulation/policy/procedure

Country	Name	Institution/organization/agency
Argentina	Law N°25.188 on Public Ethics and etc.	
China	Supervision Law of China	National Commission of Supervision
France	Sapin 2 law and etc.	Financial Prosecutor Office (PNF), Central Office for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Financial and Fiscal Offences (OCLC IFF),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AFA), 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in Public Life (HATVP)
Germany	Federal Government Directive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donesia	Presidential Regulation No.55/2012	Ministry of Home Affairs
Italy	Law n°190 of 2012	National Anticorruption Authority (ANAC), Dipartimento della Funzione Pubblica (civil service department)
Korea	Anti-corruption Act, Code of condu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Netherlands	Code of conduct, gift rules	
Saudi Arabia	National Strategy for Protecting Integrity and Combating Corruption with Council of Ministers Resolution No. 43	
USA	Ethics in Government Act and etc.	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 (OGE)

### 3. Monitoring and evaluation

1. Name and type of such measure
2. Institution/organization/agency responsible for operating / coordinating / managing selected measures
3. Subject of the monitoring/evaluation
4. Public organizations subject to selected measures
5. questionnaires/surveys used for the monitoring/evaluation
6. Monitoring/evaluation process
7. purpose, achievements, goals, expected outcomes, etc.



### 3. Monitoring and evaluation

8. Difficulties and challenges encountered, and ways to address or overcom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9. Does your country communicate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evaluation?

10. Incentives for public organizations for its good performances in implementing the anti-corruption measures.

11. Public funding for the measures

12. Transferrable to other countries

III

Implication

### 1. Various systems and mea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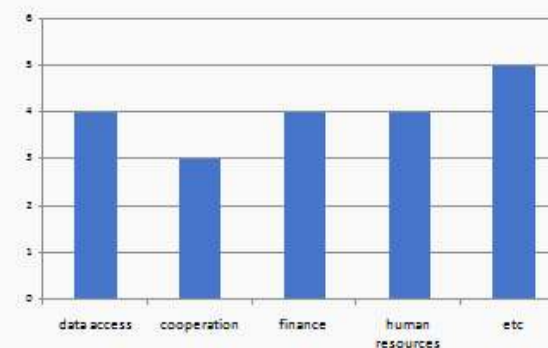
#### ✓ Types of operation

- Focal governmental institution/organization/agency
- Several leading governmental bodies in cooperation
- No designated governmental authority

#### ✓ Incentives

- Prize, promotion, public announcement (through media)
- No explicit incentives

### 2. Difficulties and Challenges





## IV Conclusions

Limits in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Understand our present situation and  
prepare future ways to go forward

Useful reference for countries interested